



24일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킥오프 기자회견에서 구단 감독들이 우승트로피 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황보관 감독, 수원 윤성효 감독, 제주 박경훈 감독, 부산 안익수 감독, 전북 최강희 감독, 전남 정해성 감독, 울산 김호근 감독, 대전 왕선재 감독, 경남 최진한 감독, 강원 최순호 감독, 대구 이영진 감독, 광주 최만희 감독, 포항 황선홍 감독, 인천 허정무 감독, 상주 이수철 감독, 성남 신태용 감독은 외국출장 중이라 불참했다. /연합뉴스

인삼공사 몬타노 빛바랜 53점 ‘광광쇼’

프로배구 최다 득점 신기록
팀은 흥극생명에 3대2 패

여자 프로배구 3위를 달리는 흥극생명이 4위 인삼공사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흥극생명은 24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인삼공사와의 홈경기에서 외국인 주포 미야(30점)와 한송이(20점), 김혜진(15점)의 활약에 힘입어 3-2(33-31 19-25 25-18 24-26 15-13)로 이겼다. 인삼공사에 2경기 차이로 쫓기던 흥극생명은 시즌 9승(10패)째를 올리며 플레이오프 진입이 가능한 3위를 지켰다. 이날 흥극생명은 여자 프로배구 최초로

팀 통산 1만5000득점과 서브 득점 800개를 동시에 돌파하면서 곁경사를 누렸다. 반면 인삼공사는 외국인 거포 몬타노가 1 세트에 팀의 31득점 중 24점을 책임지는 등 총 53점을 터뜨리면서 ‘원맨쇼’를 벌였으나 패배로 빛이 바랬다. 한 세트 24득점과 한 경기 모두 프로배구 역대 최다 기록이다. 지금까지 한 세트 최다 득점은 2008-2009 시즌 몬타노, 2006-2007 시즌 레안드로(당시 삼성화재) 등이 기록한 16득점이었고, 한 경기 최다 득점은 남자부의 가빈과 박철우가 올렸던 50점이다. 여자부에서는 2009년 1월30일 데라크루즈(당시 GS칼텍스)가 45점을 올린 것이 최다 기록이었다. /연합뉴스

박지성 빠진 맨유 마르세유와 0-0 챔스리그 16강 1차전

박지성(30)이 부상으로 빠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마르세유(프랑스)와 득점 없이 비겼다. 맨유

는 24일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마르세유와의 16강 원정 1차전에서 타석전 끝에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두 팀은 3월15일 맨유의 홈 경기장인 올드 트래퍼드로 장소를 옮겨 2차전을 치른다. 맨유는 박지성 외에도 안데르손, 리오 퍼디난드, 라이언 깁스 등 부상 선수들이 많고 마르세유 역시 공격수 앙드레 피에르 지냐이 허벅지 안쪽 근육 부상 탓에 경기에 나서지 못해 두 팀 모두 100% 전력을 가동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빛고을에 열정의 축구문화 심겠다”

광주 최만희 감독 “돌풍 주역될 것” K리그 출사표
전남 정해성 감독 “모든 팀에 한번씩 꼭 이기겠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 FC 최만희 감독이 24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개막 기자회견에서 ‘시미이 즐거움 축구, 열정적인 스포츠 콘텐츠 도시를 위한 축구 정착’을 올 시즌 목표로 내세웠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올 시즌 K-리그에 뛰 어든 광주 FC를 포함해 16개 구단 감독과 각 팀의 주장을 포함한 대표 선수 1인이 참석해

올 시즌 준비 과정과 각오 등을 전했다.
전남 드래곤즈 사령탑으로 새 출발을 하는 정해성 감독은 “15개 팀 다 한번씩 이겨보고 싶다. 기회는 두 번뿐이지만 그 중 한 번은 꼭 이기면 좋겠다”고 시즌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첫 원정 대회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인천 유나이티드의 허정무 감독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해 “시미구단으로서 어려운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과 한마음이 돼 유쾌한 도전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제주 유나이티드 돌풍을 이끌었던 박경훈 감독은 “올해는 더 힘든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더욱 성장할 것이다. K-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3월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나는 K-리그 최고 라이벌 서울의 황보관 감독과 수원의 윤성효 감독은 ‘개막전 승리’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각 팀을 대표해 참석한 선수들도 2011시즌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보여줬다.
K리그 최연소 주장으로 자리를 한 광주 FC의 박기동(23)은 “일본 무대에서 실재를 했지만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 한국에서 기회를 얻었으니 내가 가진 전부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기회가 온다면 태극마크

를 달고 싶다”며 “팀에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분위기는 좋다. K리그 돌풍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최고령 주장에 이름을 올린 전남 드래곤즈의 이운재(38)는 “운동장에서 좋은 승부를 펼쳐야 한다. 항상 그랬듯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남이 쉽게 점수를 안 내주는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새출발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상주 상무 새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경우는 “올해 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꾸게 된다. 초등학교때 공격수로 득점왕을 차지한 적이 있는 만큼 새역할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모든 초등학교에 ‘전문 스포츠 강사’

저소득층 청소년 위한 스포츠바우처 예산 확대

문화체육부 업무 보고회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특기적성 분야의 체육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 강사가 배치된다.
또 올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예산이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공감형 체육정책 확대,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문화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엘리트 체육 운영시스템 개선과 민간체육시설 규제 완화 분야에서 총 14종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스포츠 바우처’ 예산을 지난해의 60억원에서 올해는 12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파크텔에서 운동선수와 지도자, 생활체육동호인 등 스포츠계 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체육분야 대국민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체육분야의 업무보고는 김기홍 문화부 체육국장이 올해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나서 정 장관이 참석자들이 간의 토론에 참여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 국장은 올해 체육분야의 주요 업무로 국제 대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서민 중심의 생활

아울러 내년까지 전국 5854곳의 모든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배치 인원을 작년의 1223명에서 1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주말리그제를 확대하는 등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젊어진 K리그 사령탑... 평균나이 49.7세

프로축구 K리그 사령탑이 젊어졌다.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개막(3월5일)을 앞두고 24일 오후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한 16개 팀 감독의 평균 연령은 49.7세다.
지난해(52.3세)보다 2.6세가 낮아졌다. 2009년에는 52.2세, 2008년에는 51.9세였다.
1951년생으로 올해 회갑을 맞은 김호근 울산 현대 감독이 어너벳 K리그 최고령 사령탑이 됐다. 외국인 선수를 몰래 불러 브라질로 건너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신태용(41) 성남 일화 감독과는 19세 차다. 신 감독을 포함해 40대 사령탑이 절반이다.

신 감독 위로 황선홍(포항·43), 이수철(45·상주상무), 황보관(46·서울), 안익수(47·순천) 감독이 40대다.
올 시즌 K리그 사령탑은 모두 ‘토종 지도자’다. K리그에 외국인 감독이 자취를 감춘 것은 2001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정해성 감독은 전남 드래곤즈에서, 전북 현대 사령탑(1996~2001년) 출신인 최만희 감독은 신생팀 광주 FC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연합뉴스

조광래호, 내달 25일 온두라스와 평가전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다음 달 평가전 상대가 결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A매치 데이인 다음달 25일과 29일 각각 남미의 온두라스, 동유럽의 몬테네그로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밝혔다.
3월25일 온두라스와의 경기는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 같은 달 29일 몬테네그로와의 경기는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평가전은 올해 안방에서 치르는 첫 A매치이자 지난 10일 터키전에 이어 열

어 두 번째 개최하는 평가전이다.
이번 소집에는 이창용(불탄) 등 해외파와 국내 최정에 K-리거들이 대거 합류할 전망이다. 온두라스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39위로 한국(32위)보다 9계단이 낮고 몬테네그로는 25위로 한국보다 높다.
축구협회는 애초 3월25일 평가전 상대로 콜롬비아를 타진하다가 온두라스를 골랐다. 온두라스는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서 H조에 편성됐지만 1무2패를 기록해 스페인, 칠레, 스위스에 이어 최하위로 밀려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금당 공인중개사

■ 감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주거지2160평 공사지가 5억 매도3억9천
- 화성동 3쌍서 부근 4차선도로 342평 공사지가 매도 1억9천
- 신촌동 상업지 310㎡(94) 공사지 3억천 매도 2억2천
- 동구 6차선 도로와 3차선도로교차 상업지 589평 2평은 637평 공사지가 27억9천 매도 23억
- 북구정 부근 대지207 건평420 공사지가 17억 매도 9억
- 대인동 대지49 건평438 공사지가 6억9천 매도 8억7천
- 송정리 금호타이어부근 5587평 공사지가 2억5천 매도 2억5천
- 북구 아파트단지 목욕탕, 골프연습장 등 대지440 건평 507 공사지가 9억7천 전세2억5천 월세300만원 13억
- 광주역앞 일몰 대지1108 건평383 건평19억천 매도 6억7천
- 화성동 남면 대곡리 도로변 농림지 4782평 공적지 5억7천 매도 2억5천 대출 2억5천 매도 2억9천
- 화성동 4층 상가주택 대지 68 건평 145 매도 3억4천
- 월산리출소 앞 바스도르변 서동 대지 141 건물은 2층과 3층 2층이 있을 공사지가 4억5천 건평5억5천 매도 2억9천
- 송하동 산 3965평 공사지가 1억천 신고는 2억 매도 7500
- 화성읍 삼현리 주거지 587평 공사지가 3억4500 매도 2억5천
- 금남로 57기 아파트 대지 111 건평300 2월26 공사지가 매도 4억9천

■ 매도·교환

- 두암동 4차선도로 195평 교회, 병원, 화원 등 직할 7억2천
- 화성동 47리 6차선 도로변 주거지 480평 매도 16억
- 화성동 농주면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아래 1900만원
- 화성동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주택 1억7500
- 남평읍 교원리 바스도르변 211평 주택과공적지 1억6천백
- 전원주택지 화성 남면 서동리 233평 경관주택 4천만원
- 산수동 호반맨션 2중주거지 220평 시설비리조합 매도 2억5천
- 하남공단 도촌동 자연녹지 506평 공적지 3억9천
- 부안군 부안읍 아파트 부지 1054평 11억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7기 123-6, 우리은행 47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 서구 관천동 토지305평 건평230평 2층건물 · 김정가 9억5천만 최자가 6억6천만
농가시설	· 광산구 월계동 토지110평 건평375평 지하1층 · 지상6층 김정가13억 최자가 7억9천만
농가시설	· 함평군 월아면 토지1060평 건물440평 · 최자가 1억3천만
근린주택	· 나주시 세지면 토지670평 건물180평 · 김정가 1억9천 최자가 7천만
창고용지	· 담양군 대지면 토지380평 건물150평 · 김정가 3억5천만 최자가 1억9천만
농가주택	· 장성군 삼서면 대지120평 건물57평 · 김정가 9천만 최자가 5천만
아파트·빌라	· 북구 두암동 대세대빌라 63평형 1층 · 김정가 1억5천만 최자가 8천5백만

▶이외 상담물건, 신평지 다수보유, 소액투자상담
광주 서구 마북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별 유지발달 501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 용량 100 -1,000KW.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회암동 대지433㎡(131평). 전,월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양, 경관양호.

쌍총동 2차선도로 내대지

서구 쌍총동 2차선도로내 대지513㎡(155평). 제2종일반주거지역매매가 3.3억 235만원. 캔넨. 식당. 업무용빌딩 적합.

쌍총동 내대지

서구 쌍총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2,992㎡(905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상담형의. 도시형생활주택. 종교시설. 요양원까지. 일부 분할가능.

상무지구 내대지(업무용지)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합. 993㎡(300평). 매매가 18억. 회사시설. 업무용빌딩.

첨단 보훈병원원 자연녹지

광산구 신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 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건물매매(용봉지구)

신안동 용봉지구 앞 대지367㎡(111평). 3층. 연면적598.8(181평) 매매가 6억. 보종금6,000만원 월330만원 근린생활시설 입점.

서광구역 뒷 자연녹지

면적 3,835㎡(1160평). 4m. 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 현재 입야.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 ☆.보종금: 10억원 월세: 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73억원
- ☆.보종금 1억 월세 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매가: 32억원
- ☆.보종금: 8억2천 월세: 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28억원
- ☆.보종금: 1억1천 월세: 350만 매매가: 6억7천

♣ 전원주택

- ☆.광산구 오운동 대지: 322㎡ 건물: 95㎡ 매매가: 5천만원
- ☆.광산구 오운동 대지4,926㎡ 건물: 66㎡ 매매가: 2억3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1,330㎡건: 60㎡ 매매가: 2억9천만원
- ☆.담양군 수북면공산리 전원주택단지 내 대지654㎡ 매매가: 1억2천8백만원

♣ 대지.전.답.임야

- ☆.치평동 대지: 370㎡ 매매가: 13억5천
- ☆.마복동(30m도로접)내1,350㎡매매가: 22억원
- ☆.암촌동 정학마을대: 3,600㎡ 매매가4억9천
- ☆.덕충동 생산녹지 담 434㎡ 매매가 1억7천
- ☆.남구 월성동농로포장도로 코너 3,500㎡ 매매가 1억3천7백만원
- ☆.장성남면 임야: 13,500㎡매매가: 4억5천만원

♣ 공장부지

- ☆.광산구 양동(개화관리지역)집중지: 11,856㎡ 매매가: 7억9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전화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정사건-2번)

애들지식센터

사무실·연구소 분양 및 임대 <R&D특구>

정부중합차서 옆(첨단)

- ▶ 1·2층 복층구조
- ▶ 전용 32평. 총 64세대
- ▶ 각종 시스템 냉온방기 설치
- ▶ 편지업종

노무사. 관세사. 기업부설연구소. 컴퓨터개발업.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디자인사무실. 종합건축사무실

기타 업종은 상담 즉시 입주 결정

▶ 성황리 입주중 ◀

공동중개 환영!!

010-2441-1610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치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가능 광곡간 5·18 광로변)
-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행거구

※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

H.P.011-601-5354